지식경제부 보도참고자료	"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,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"
자료문의 : 투자유치과장 유법민(2110-5361), 박성우(5363), 김선영(5368)	

지경부, FTA 효과를 활용한 독일 기업 투자유치 활동 전개

– 한·미 FTA 발효에 맞춰, 독일 강소기업 투자유치활동 전개 –

□ 지식경제부는 3.12~15일, 한국투자설명회를 독일 뉘른베르크(3.12)와 함부르크(3.15)에서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, 한-EU FTA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을 반영하듯 총 200명 이상의 독일 투자자들이 참석하였음

○ 금번 투자설명회는 작년 7월에 발효된 한-EU FTA와 3월 15일에 발효된 한-미 FTA를 통해 『FTA 허브 국가』로 부상하고 있는 한국을 적극 홍보하고,

○ 특히, 한-EU FTA 발효 이후 한국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부품소재분야 독일 强小기업의 한국투자 유치를 위해 마련되었음

< 한국투자설명회 개요 >

○ 일시/장소 : 3.12(월)/뉘른베르크, 3.15(목)/함부르크
○ 한국측 참석자
 – 지식경제부, 7개 지자체 및 FEZ, 국내 대기업(현대차, POSCO, 르노삼성, 삼성전자), KITIA 등
○ 현지 참석자
 – 뉘른베르크 : Siemens AG社, Robert Bosch社 등 100여개 기업 임직원
 – 함부르크 : MAN Diesel & Turbo, W.C. Heraeus 등 약 100여개 독일 기업 임직원
○ 주요활동 : 투자설명회, 주요 투자가 라운드테이블, 1:1 개별상담회 등

□ 또한, 독일 참여기업들이 한국에서 비즈니스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대자동차, 삼성전자 등 국내 부품소재 수요 대기업이 '향후 사업방향과 구매전략' 등을 발표하여 독일 기업들로부터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음

□ 한국투자설명회에 참석한 강성천 투자정책관은 FTA허브 국가로서의 對韓투자 이점, 한국경제 현황 등 한국의 우호적인 투자환경을 소개하면서,

○ '부품소재분야의 최첨단 기술력을 가진 독일과 FTA 허브 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한국이 투자협력을 강화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클 것이며,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상호 윈-윈할 수 있음'을 강조하였음

【 한국투자설명회 주요 성과 】

□ 금번 행사 기간 중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(KITIA)는 독일내 12만개 회원을 보유한 뉘른베르크 상공회의소와 한·독기업간 합작투자, 기술협력 등 상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업무협력 MOU를 체결함

○ 이는 독일 강소기업의 협의체인 상공회의소와 업무협력을 통해 對韓투자 촉진을 위한 상시적인 협조체제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

□ 또한, 세계적인 금속 재활용 및 재가공 기업인 독일 A社(세계시장 점유율 13%)와 금속 재활용분야에 2015년까지 약 2,000만불을 투자하는 MOU를 체결하였음

○ 이는 자원 재활용 및 CO_2 배출 감소로 녹색성장정책에 부합하는 첨단기술을 보유한 외국기업을 유치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

< 투자MOU 개요 >

○ 뉘른베르크 상공회의소 투자협력 MOU
 – 일시 및 장소 : 3.12(월) 14:00~14:20(현지시간), 뉘른베르크
 – 참석자 : 지식경제부, KITIA, 뉘른베르크 상공회의소 대표 등
 – 주요내용 : 한·독기업간 합작투자, 기술협력 등 상호 투자협력 지원
○ 독일기업 A社 투자MOU
 – 일시 : 3.13(화) 11:00~11:30(현지시간)
 – 참석자 : 지식경제부, KITIA, 투자기업 등
 – 주요내용 : 금속 재활용 및 재가공 분야 2,000만불 투자MOU

□ 아울러, 지자체와 독일기업간 투자 상담회를 개최하여 총 68건(뉘렌베르크 33건, 함부르크 35건)의 투자상담을 실시하였음

○ 이를 통해, 우주항공분야 독일 D社는 한국내 항공분야의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투자협력 의향을 밝히고, 자동차부품분야의 S社는 전기자동차관련 한국기업과의 비즈니스 협력에 관심을 표명하는 등 다수의 기업이 한국기업과의 투자협력을 희망하였음

【 기타 對韓투자유치 활동 】

□ 독일 녹색산업의 중심지인 튀링겐州 경제정책국장과의 면담을 통해 향후 녹색산업분야에 있어서 양국간 투자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함

□ 뉘렌베르크 한국투자설명회에 참석한 바이에른州 아태경제협력국장은 州 경제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경제사절단이 5월중 訪韓할 예정으로, 지경부·구미·부산 등을 방문하여 한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힘

【 향후계획 】

□ 지식경제부는 금번 설명회를 통해 독일기업의 對韓 투자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, 한-EU, 한-미 FTA 효과를 활용한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임

○ 특히, 금년 6월에는 지경부 고위급이 참석하는 한국투자설명회를 독일 등 EU지역에서 개최하여 對韓 투자분위기를 고취시킬 계획임

□ 또한, 한-미 FTA 발효를 계기로 미국·일본·중국에 대해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는 것과 함께 중동, 브라질 등으로 투자유치 활동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

참고 한국투자설명회

1. 개최배경

○ 한-EU('11.7월), 한-미 FTA('12.3월) 발효에 따른 높아진 對韓투자 관심에 부응하고 독일·EU 부품소재 강소기업의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한국투자설명회 개최

2. 투자설명회 개요

○ 일시 : '12.3.12일(뉘른베르크), 3.15일(함부르크) 09:30~18:00(현지시간)

○ 장소 : 뉘른베르크 / 함부르크

○ 참석자 : 지경부, KITIA, IK 및 지자체, FEZ 투자유치 담당자 30여명, 독일기업(Bosch, SIMENS, IWIS 등) 참가 인원 200여명

3. 프로그램

시 간	주요 내용	비고
09:30~09:40	축사 * 뉘른베르크 상공회의소 CEO, 함부르크 중소기업협회 대표	
09:40~09:50	환영사 * 지식경제부	
09:50~10:05	**한국투자환경 및 한국 부품소재전용공단 · 지자체소개** * 인천FEZ, 전북, 경북, 구미, 대구, 경남, 부산	
10:05~12:15	**대기업, 외투기업 사례발표 및 투자실무 등** * 현대차, 포스코, 르노삼성, 삼성전자, BOSCH, 삼일회계법인, 솔라앤에너지, 법무법인 원 등	
12:15~14:00	**주요 투자가 라운드 테이블**	
14:00~18:00	1:1 투자상담회	